



레위기

교재 p.93

1. 이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와이크라 또는 바이크라(וַיְקֹרֶא)라 하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의미이다.

(레 1:1, 개정)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헬라어 성경에서는 레비티콘(Λευιτικόν)이라 하며,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영어성경에서는 ‘Leviticus’라고 하며, 한글성경은 ‘레위기’라 한다.

2. 기록자

‘다른 의견도 일부 있으나’ 대체적으로 모세를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다.

3. 위치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 구약의 역사서 17권 중 세 번째에, 그리고 구약성경 39권 중 세 번째에 위치한다. 출애굽기가 ‘민족의 탄생’을 기록하며 국가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준다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 보여준다.

4. 배경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거할 때에 기록되었다.(지도참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율법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들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세웠다.

5. 기록목적

- 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알려주기 위해 / 하나님과의 관계
- ② 거룩하게 사는 ‘성결의 규례’를 알려주기 위해 / 세상에서의 삶
- ③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

• 예표(豫表, symbol)

미리 알려주는 표징. 장래의 완전한 것(실체)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현재의 미미한 것(그림자)을 뜻 한다(사8:18; 20:3; 속3:8). 유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요 1:29), 광야의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행7:38).¹⁾

1) 가스펠서브,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생명의 말씀사, 2013.

(히 10:19, 공동)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 10:20, 공동)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마 27:50, 개정)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 27:51, 개정)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 성경의 통일성 교재 p.20-21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모든 내용은 약 1,500-1,600년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40여 명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동시대의 인물들이 아닐뿐더러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지닌다.

그 통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6. 전체 보기

크게 보기	제사법(10) 1:1-10:20			정결법(7) 11:1-17:16			정결법(10) 18:1-27:34					
작게 보기	5제사 (백성) 1:1 -6:7	5제사 (제사 장) 6:8 -7:38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 8-10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	백성의 정함과 부정함 12-15	대 속죄일 16-17	생활의 규례 (백성) 18-20	생활의 규례 (제사 장) 21-22	7절기 와 성막 관리 23-24	안식년 과 희년 25	순종과 불순종 26	여호와 께 드리는 법 27
핵심 주제	하나님께 나아감 - 교재 p.93-95 ① 제사를 통해 ② 제사장을 통해 ③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					
교재 구분	정복시대 - '소유와 울법'											
장소	시내산											
기간	약 한달											

7. 자세히 보기

1) 제1부 제사법(1:1-10:20) 교재 p.93-95

• 개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만 했다. 제1부의 제사법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두 차례에 걸친 다섯 제사의 설명은 백성과 제사장이 각기 지켜야 할 것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제사 드리는 방법 네 가지도 제시한다. 또한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 구약시대의 제사와 그 상징성

구약 시대 각종 제사들은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법이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시대 제사는 신약 시대의 예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구약 시대 각종 제사를 통해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배우게 된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흘린 제사 제

물이 필요했었다(히 9:22). 이는 집자가 보혈로써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시한다.²⁾

• 제사 ‘목적’에 따른 구분

명칭	번제 (Burnt Offerings)	소제 (Grain Offerings)	화목제 (Peace Offerings)	속죄제 (Sin Offerings)	속건제 (Guilt Offerings)
목적 과 의미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의 삶을 다짐할 때.	하나님과 화평과 친교를 위해(감사제, 서원제, 낙현제) *나머지 부분을 성막 뜰에서 나눠 먹음	죄(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 배상할 수 없는 죄)사함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	성물 또는 금령을 범한 자나 이후에 대해 범죄한 자의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이 필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	흠 없는 수컷. 형편에 따른 예외 인정	무교병 ³⁾ 이나 곡물, 반드시 소금을 침	빈부에 따라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	제사장·회중(수송 아자), 족장·왕(숫염소), 개인(암염소), 예외 인정	속죄제와 동일하거나 양의 경우 흠 없는 수양
피 뿌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림	피흘림 없음	제단 사방에 뿌림	-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속할 때 : 성소 휘장 앞에 7번, 분향단 뿔에 바름, 번제단 아래 쓸음. - 족장 이하의 죄 :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아래 쓸음.	속죄제 규례와 동일
방식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움	• 번제 및 화목제와 함께 드려짐 •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 단에 불사름.	•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달인 껴풀을 단에 불사름 • 가슴을 요제로, 우편 뒷 다리를 거제로 삼음	•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달인 껴풀을 단에 불사름 •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제물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등을 진 밖에서 불사름	•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달인 껴풀을 단에 불사름 • 범죄한 물건의 1/5를 더하여 배상
성격	자원	자원	자원	의무	의무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과 온전한 충성을 상징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상징
참조 구절	레 1:2-17; 6:8-13; 엡 5:2	레 2:1-16; 6:14-23; 히 4:15	레 3:1-17; 7:11-21; 엡 2:11-23	레 4:1-5:13; 6:24-30; 히 9:12-14	레 5:14-6:7; 7:1-7; 벧전 2:21-24
예표적 의미	•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 • 그리스도의 희생(마26:39-44,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떡이 되심을 의미하며 완전한 겸손을 의미 • 누룩이 없음을	•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물론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심(마5:23-24)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상징 • 속죄 희생의 어린양이 되심 (벧전 1:19) • 제물이 진영	인간의 범죄에 대한 회개 기도의 상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다는 사실을

2) 가스펠서브편집부,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2016.

	막14:16) • 성도들의 헌신(롬12:1-2, 히13:15)	그리스도의 무죄를 상징(히4:15, 요일3:5) • 기름이 있음은 성령을 상징(눅4:18 : 요일2:20, 2:27)		밖에서 태워진 것처럼 예루살렘성 바깥 골고다에서 고난 받으심(히13:11-13)	예표함(골2:13)
--	---------------------------------------	--	--	--	------------

<구약의 제사 개념이 신약에서 활용되는 사례들>

• 번제

(엡 5:2, 개정)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롬 12:1, 개정)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2, 개정)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소제

(히 4:15, 개정)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화목제

(마 5:23, 개정)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마 5:24, 개정)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 속죄제

(히 9:12, 개정)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 속건제

(눅 19:8, 개정)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부정축재를 업으로 삼던 삭개오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기도만 드렸다 해도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삭개오는 그만큼 불의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위에 더하여 범죄한 물질의 보상까지 약속하였다. 그것도 네 배로 보상하겠다는 결단이었다. 주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한 속건제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룬 것이다.”⁴⁾

3) 누룩(효소)을 넣지 않고 구운 떡(빵, 과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날 밤 무교병을 구워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하였는데(출 12:8, 15),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었다. 그래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 무교병은 ‘고난의 떡’으로 이해되기도 했다(신 16:3). 이후 유월절 절기에는 무교병을 먹는 전통이 생겨났다.

4) 이재철, 『새신자반』, 흥성사, 2008, p.254.

• 제사 ‘방법’에 따른 구분

명칭	화제 (Fire Offerings)	거제 (Heave Offerings)	요제 (Wave Offerings)	전제 (Drink Offerings)
제사법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 드림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림. 성소 밖에서 행해짐.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든 후 위아래 또는 앞뒤로 흔들. 성소 안에서 행해짐.	포도주, 기름, 피 등을 제물에 부어 드림
의미	제물의 연기(향기)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드려짐. 죄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의 헌신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의 제사장 몫으로 돌림. 하나님이 생명 양식인 예수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심	거제의 의미와 동일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정신이 깃듦
관련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 중 희생제물의 오른편 뒷다리를 드릴 때,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릴 때, 십일조를 드릴 때	화목제 중에 희생제물의 가슴부위를 드릴 때, 땅의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릴 때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고 항상 번제 또는 소제와 더불어 사용됨
참조 구절	레 1:9, 17; 히 10:10-13	레 7:14, 32; 롬 8:32	레 7:30; 요 6:27	레 23:13, 18; 딤후 4:6

• 사도바울의 마지막 고백에 등장하는 ‘전제(drink offerings)’

(딤후 4:6, 개정)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딤후 4:7, 개정)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8, 개정)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 제사인과 제사장의 역할 분담

현대를 사는 예배자의 상식적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구약의 제사인은 능동적으로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예) 번제

제사인 : 제사를 위한 희생물을 회막문에 끌고 나와 안수하고 나서 그 동물을 제의적으로 죽인다.

제사장 : 희생물을 죽일 때 나오는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

제사인 : 희생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다.

제사장 : 각을 뜯 것을 미리 준비하였던 번제단의 나무와 불 위에 올려놓는다.

제사인 :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제사장 : 그 전부를 단 위에 불로 사른다.

제사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1~7장까지인데 이중에서 제사인에 대한 규정은 1~6:7까지 총 5장이 넘는데 제사장에 관한 규정은 6장과 7장 총 2장뿐이다.

• 제사장의 직분 위임

교재 p.95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은 p.84

(출 29:1, 개정)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출 29:9, 개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출 29:44, 개정)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레 8:9, 개정)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예호 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서 활용되는 사례

(히 9:11, 개정)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개정)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3, 개정)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뿐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히 9:14, 개정)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 제2부 정결법(11:1-17:16)

교재 p.93-95

•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법이다. 거룩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음식법을 통해서 식사 때마다 구별하는 것을 배우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며, 속죄일을 통해 거룩을 회복한다.

- ① 육체적인 정결(11-15) *주로 죽음과 관계된 것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 음식법.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11:1-47)
- 산모의 정결 의식(12:1-8)
- 피부병과 곰팡이(13:1-14:57)
- 유출병(15:1-33)

• 정결에 대한 법이 디테일한 이유 :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

- ② 영적인 정결(16-17)

- 대속죄일(Day of Atonement)

종교력 7월 10일의 대속죄일을 말한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권속을 위해, 또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을 위해(성소조차도 백성들의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이날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제비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리고(서쪽), 다른 한 마리(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동쪽으로) 추방되었다.

(시 103:12, 개정)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레 23:27; 25:9). 그래서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했다(레 16:29; 23:28-31). 이날이 율법이 정하는 유일한 금식일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대속죄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여실히 짐작할 수 있다(유다 왕국 멸망 이후에는 더 많은 국가적

금식일이 생겨났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엄숙한 날이요,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지적대로 속죄일 의식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 사역의 그림자였다(히 9:19-28; 10:5-10).

대속죄일 의식의 개요⁵⁾

1>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한 속죄제(레16:11-14)

-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송아지를 잡는다.
- 대제사장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향을 피운 후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동쪽, 즉 속죄소 정면 위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으로 속죄소 앞(지성소 바닥)에 일곱 번 뿐린다. 피를 뿐리는 것은 오염된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2>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레16:15-22)

-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한다.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의 위해’,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구별한다.
- 아론은 한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후 동일하게 속죄소 위와 앞에 뿐린다.
- 지성소에서 나와 번제단의 귀퉁이 뿐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번제단에 일곱 번 피를 뿐린다.
- 이는 백성들의 죄(평소 드렸던 속죄제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를 오염된 번제단을 정결케 한다.
- 아론은 두 염소 중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한다. 이것은 죄를 염소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게 됨을 의미한다.
-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

3> 번제를 드리는 의식

-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성소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원래의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른다.
- 속죄제물의 가죽, 고기, 배설물을 밖에서 불사른다.

4> 나머지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③ 피에 관한 규정(17:1-16)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을 도살할 때는 제사용과 식용의 구분 없이 먼저 성막 문으로 가져와 예물로 드려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짐승의 피는 먹어서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의 제단에 뿐려야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 김덕중, 『거룩 : 성소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킹덤북스, 2011, p.343.

(레 17:11, 개정)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뿐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속죄의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제3부 성결법(18:1-27:34)

성결법은 정결해진 사람이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법이다.

생활의 규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7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거룩을 ‘기억’한다. 거룩한 삶에 대한 평가로 상과 별이 있음을 보여준다.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 생활의 규례(백성) 18:1-20:27

- ① 성윤리
- ② 사회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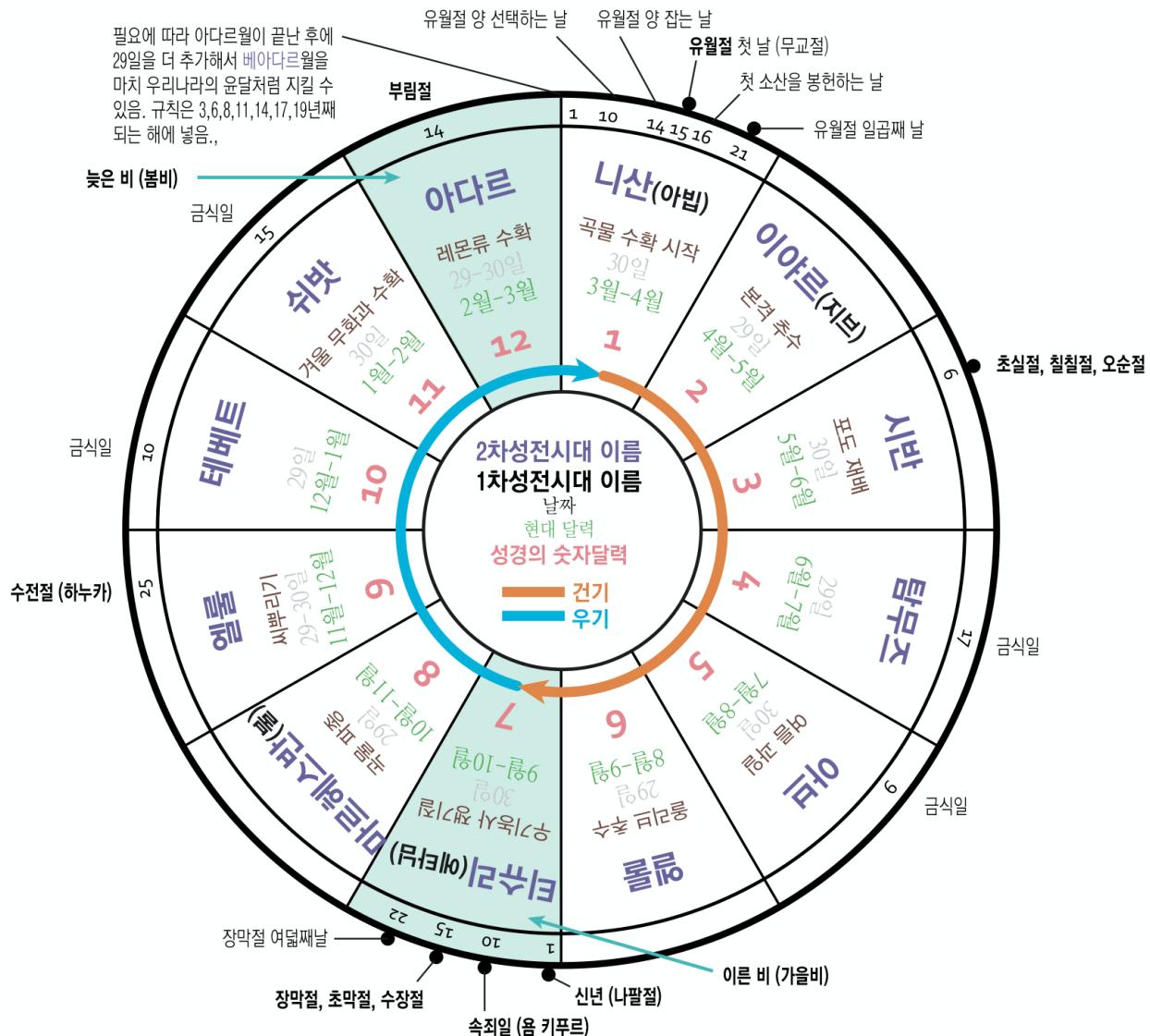
③ 반드시 죽여야 할 죄 : 우상숭배(몰렉 숭배, 인신제사), 신접한 자, 박수무당이 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성적음란 등이다.

• 생활의 규례(제사장) 21:1-22:33

- ① 제사장의 성결 규례
- ② 성물 규례

• 7절기와 성막관리 23:1-24:23

- ① 안식일
- ② 7절기 :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 ③ 성막관리
- ④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출처 : biblia 홈페이지(biblia.co.il)>

• 안식년과 희년 25:1-25:55

- ① 안식년
- ② 희년

(레 25:20, 개정) 만일 너희가 밀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레 25:21, 개정) 내가 명령하여 여덟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삼 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레 25:22, 개정)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요일 5:3, 개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순종과 불순종 26:1-26:46

- 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 ② 불순종하면 7배의 7배의 7배의 7배의 벌, 즉 2401배의 벌을 주신다.

• 여호와께 드리는 법 27:1-27:34

- ① 서원예물의 값
- ② 처음 난 가축은 여호와의 것
- ③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 ④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

여기서 1/10은 일부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10/10을 대표하는 1/10의 역할을 말한다.

즉, 십일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의 한 부분이다(고후 9:6-7).

† 신명기

1. 이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레 하데바림(מִגְגָּה קָרְבָּן)으로 ‘이는 ... 말씀이니라’는 의미이다.

(신 1:1, 개정)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듄테로노미온(δεύτερονομίον)이라고 하며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영어성경은 ‘Deuteronomy’, 한글성경은 ‘신명기(申命記)’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계명이라는 뜻이다.

2. 기록자

‘다른 의견도 일부 있으나’ 대체적으로 모세를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다.

“모세가 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세적인(mosaic, but not mosaic)”

3. 신명기의 배경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언약식에 참여할 수 없는 아니 어린 사람들이었다. 그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재설명이 필요했다.

4. 기록목적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으며,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다.

5.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불행과 실패의 원인, 행복과 협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역사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모세는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과 번영의 지름길임을 가르쳐 준다(4:7-8, 33; 5:6; 6:4-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었던 과거 역사를 기억시켜 준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원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머물기를 다짐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실패와 복락의 두 가지 상반되는 삶을 반복한다. 협통의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cf)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마 4:4, 개정)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신8:3
 (마 4:7, 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신6:16
 (마 4:10, 개정)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신6:13

6. 전체 보기

크게 보기	설교 #1 1:1 -4:43	설교 #2 4:44-28:68					설교 #3 29:1-34:12														
작게 보기	광야 생활 회고	율법 설명 및 계명 준수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율법 순종 및 복과 저주	모압에서의 언약과 맹세	명령을 지키라 (복과 저주)	새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의 노래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모세의 죽음										
	1:1 -4:43	4:44 -11:32	12:1 -16:17	16:18 -20:20	21 -26	27 -28	29	30	31:1 -31:29	31:30 -33:29	34										
핵심 주제	회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					가나안 땅을 향해														
교재 구분	5과 출애굽과 광야시대, 6과 소유와 율법																				
장소	모압 평지																				
기간	약 한 달																				

7. 자세히 보기

제1부 첫 번째 설교 1:1-4:43

모세는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회고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촉구하신 사실, 지파의 수령을 세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족속들(에돔, 모압, 암몬), 헤스본 왕 시흔과 바산왕 옥을 정복한 일과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회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당부하며 우상숭배의 위험을 경고한다.

제2부 두 번째 설교 4:44-28:68

광야 1세대(1차 인구조사)는 모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에게 율법을 설명한다.

십계명과 쉐마, 우상숭배 금지 등 계명을 지키라 명령한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의식법)과 이웃사랑(시민법, 사회법)이 주제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며 복과 저주에 대해 설명한다.

• 십계명 설명(5:1-33)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설명한다. 38년 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출20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없었기 때문이다.

• 쉐마(6:4-9)

(신 6:4, 개정)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 6:5, 개정)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개정)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개정)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
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개정)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 6:9, 개정)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 곧 ‘들어라’라는 말은 ‘순종하라’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모세는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선포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곧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언제나 자녀에게 가르치고,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잊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말씀이 담긴 상자(batim)와 가죽끈(retsuout)으로 만들어진 테필린(Tefillin)을 착용한다. 팔에 착용하는 성구함은 셀 야드(Shel yad)라고 부르며, 머리에 착용하는 성구함은 셀 로쉬(Shel rosh)라고 부른다.

• 의식법(12:1-16:17) - 하나님 사랑

예배처소, 우상숭배 금지, 정결한 음식의 법(레위기 11장 해설), 십일조법, 면제년법, 초태생, 거룩한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다.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한다.

-택하신 예배 처소에 관한 법(12:1-28)

-우상숭배 엄금의 법(12:29-14:2) :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 한다.

-정결한 음식의 법(14:3-21) :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설명한다.

-십일조법(14:22-29) : 3년에 한 번씩 모든 십일조는 자립할 수 없는 자들에게 돌아갔다.

-면제년(안식년)법(15:1-8) :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고, 종을 해방시키라고 명하신다.

-첫 태생에 관한 법(15:19-23) : 소와 양의 첫 수컷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거룩한 절기(16:1-17) :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칠칠절(맥추절, 오순절) :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초실절에 보리를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함.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해 첫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후로 ‘성령강림절’로 지켜짐

*초막절(장마절, 수장절) :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즐기던 축제.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

• 시민법(16:18-20:20)

재판법, 왕의 조건,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법, 도피성 제도, 증인에 관한 법(두 세 사람), 전쟁에 관한 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재판법(16:18-17:13) :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을 명하고 있다.

-왕의 제도에 관한 법(17:14-20) :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①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②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③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후에 솔로몬 왕은 신명기에서 정한 왕의 제도를 모두 어기게 된다.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법(18:1-22) : 레위인과 제사장은 분깃이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후에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할 때 레위지파는 따로 영토를 분배받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된다.

-도피성제도(19-1-14)

도피성(逃避城)이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로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이다. 문자 그대로 살

인한 사람을 받아들여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성읍이 곧 도피성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고의적인 살인자, 곧 과실치사자(過失致死者)의 경우만 받아들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대신에 제사장이나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하기에 악랄하고 고의적인 살인자는 비록 도피성에 피신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개 처형시킴으로써 심판의 준엄함을 나타내었다. 한편, 과실치사자로서 도피성에 몸을 숨긴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만약 임의로 나오는 날에는 그에게 죽임당한 자의 친족(피의 보수자)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다. 다만, 당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 성에 피신한 자는 그 죽음의 대속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금껏 머물던 도피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었다(민 35:5-34; 신 4:41-43; 19:1-13; 수 20:1-9).

한편, 도피성의 위치는 과실치사자가 가나안 땅 어디서나 쉽게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 지경 어느 곳에서라도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위치(약 50km 내외)에 선정되었다. 이것은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제때 피신하지 못하여 피의 복수자에게 잡혀 죽임당하는 또 다른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조처였다. 이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 시요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한편, 유대 전승에 따르면, 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 요소요소에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② 도피성 방향으로는 곧고 넓은 길이 정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③ 요단 강 양편에 각각 세 군데씩 선정된 도피성은 각 성읍 사이의 거리가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동일한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

-증인에 관한 법(19:15-21) : 증인은 2-3명이 있어야 한다.

-전쟁에 관한 법(20:1-20) : 군면제자(약혼 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 집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자, 포도원을 만들고 수확을 하지 못한 자). 전쟁 전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한다.

• 사회법(21:1-26:19)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에 대한 속죄, 가족법, 동족보호법, 수확의 예물 드리는 법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에 대한 속죄(21:1-9) : 피살자 사방 원근을 재어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암송아지를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

-가족법(21:10-22:30)

-동족보호법(23:1-25:19)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 성기가 훼손된 자, 사생자, 모압 암몬 사람(10대를 거쳐도 안 됨), 애굽사람(3대를 지나면 가능)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얹을하게 하지 말 것.

·추수할 때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조금 남길 것.

·태형은 40회 이상을 넘기지 마라.

(고후 11:24, 개정)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바울의 고백

•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제3부 세 번째 설교 29:1-34:12

• 모압에서의 언약 갱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십계명을 주셨을 때)을 재확인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하신다.

(신 29:13, 개정)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신 29:14, 개정)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 29:15, 개정)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 장래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

• 새 지도자 여호수아

(신 31:7, 개정)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 모세의 죽음

(신 34:4, 개정)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신 34:5, 개정)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 여호수아

교재 p.102-104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고 요단 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1-12장)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각 지파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13-24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성취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본서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다 할 수 있다.

1. 제목

본서의 명칭 ‘여호수아’는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히브리 성경 역시 본서를 ‘예호수아’로 명명하며,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도 ‘여호수아’의 헬라식 명칭인 ‘이에수스’로 표기한다.

2. 기록목적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순서와 전쟁에 대한 기록, 그리고 땅의 분배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한다. 여호수아의 소명과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정복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

3. 본서의 배경과 무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체류지 모압 평원, 요단 강, 길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지인 가나안 중부의 여리고와 아이 성.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방의 여러 도시들. 영토 분배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할당받은 여러 도시들.

• 전체보기

크게 보기	가나안 정복 1:1-12:24				가나안 분배 13:1-24:33			
작게보기	요단에서 전쟁 준비	중부전투 -여리고와 아이성	남부전투 -기브온과 아모리 다섯 왕	북부전투 -하솔과 연합군	요단 동편분배 -2.5지파	요단 서편분배 -9.5지파	도파성과 레위인 성읍	세겜에서의 고별설교
	1-5	6-8	9-10	11-12	13	14-19	20-22	23-24
지도	① ~ ②	③ ~ ④	⑤ ~ ⑪	⑫ ~ ⑯				
핵심 주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종							
교재구분	6과 소유와 을법							
장소	모압 평지	중부	남부	북부	세겜			
기간	약 한 달		약 7년		약 8년			

• 주요 에피소드 - “믿음과 순종”의 도식에 따른 정복과정

<땅의 진입> “믿음과 순종”에 의한 진입(1-4장) 교재 p.102-103

① 여리고성 정탐(2:1-2:24)

-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고,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함.
-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정탐꾼을 색출하고자 하나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김.

(수 2:9, 개정)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마 1:5, 개정)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히 11:31, 개정)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② 요단강(두 번째 방울-세 번째 방울) 도하(3:1-17)

(수 3:15, 개정)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수 3:16, 개정)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 팔레스틴에서 밀이나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대략 4-5월 경으로 이때는 봄비가 내리고 요단강의 근원인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 내리는 시기이므로 요단 강물이 늘어나 폭은 30m, 깊이는 3~4m가 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강을 건널 수 없었다.

<땅의 정복> - 믿음과 순종을 통한 정복(5-12장) 교재 p.103

③ 할례와 유월절(5:2-12)

-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으로 광야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된다. 강을 건넌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40년간 하지 못했던 할례를 실시한다. 대적들의 눈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시행했다. 또한 할례 후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된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④ 두 번의 전투 여리고성 전투 VS 아이성 전투

- 여리고성 전투 :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모든 군사는 여리고를 7일 동안 돌되 한 바퀴

씩 6일 동안 돌며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돈 후 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외치라고 명령하심.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짐

- 아이성 전투 :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감춘 유다지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함.

⑤ 정복전쟁(9-12장)

*지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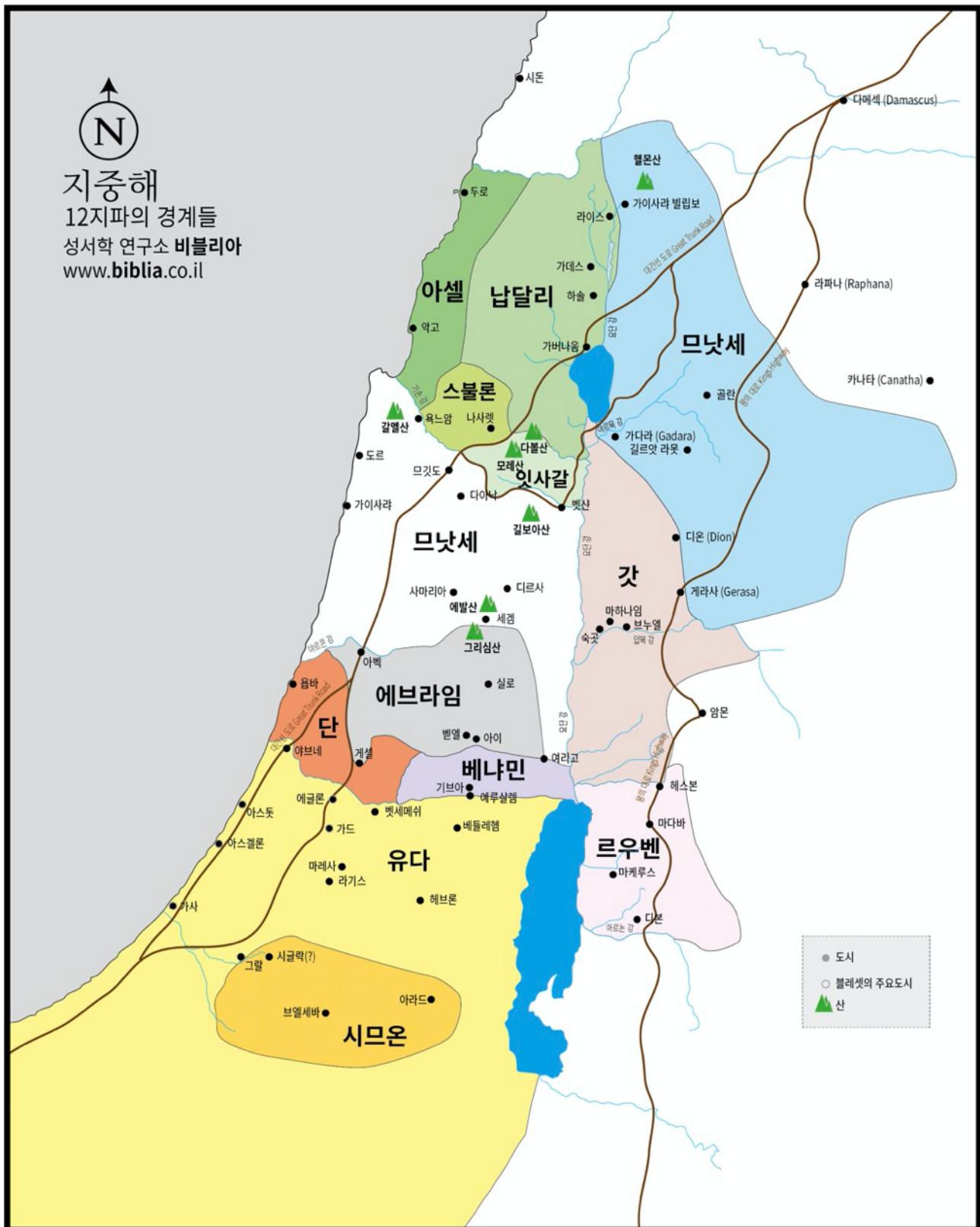
<땅의 분배> - 믿음과 순종을 통한 소유(13-22장)

교재 p.104

⑥ 땅의 분배(13-19장)

*지도참조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이었으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전투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도 믿음과 순종이라는 도식이 적용됩니다.



<여호수아 생애의 종결> - 믿음과 순종을 다짐함(23-24장)

⑦ 세겜에서의 고별설교(23-24)

(수 24:14, 개정)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5, 개정)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